

어민들 신속 구조 대형참사 막아...해경, 이번에도 허둥지둥

홍도 해상 유람선 좌초에서 구조까지

출장소 직원 1명만 구조장비 없이 유람선 타고 현장으로 순찰정 흑산도에 1대 뿐...홍도서 사고 났을 땐 골든타임 허비

지난 30일 홍도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110명이 탄 유람선이 좌초했다가 승무원, 어민들의 적극적 구조 활동으로 탑승객 전원이 구조됐다. 긴박한 순간에도 승무원들의 침착한 대피 유도과 어민들의 적극적 도움이 어우러지면서 신고 접수 28분 만에 전원 구조되는 등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과 해경의 미숙한 대처는 바뀌지 않았다.

◇“진짜 선원이었다”=홍도 해역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승객 마모(여·48·경기도 군포시)씨는 지난 30일 “아수라장이었다. 세월호가 떠올라 온 몸이 굳어졌다”고 사고 상황을 떠올렸다.

마씨는 이날 ‘홍도 바캉스호’ 3층 객실에서 일행 3명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배 아랫부분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마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정신을 잃었다. 순간 선미가 점차 가라앉으면서 파도는 연거푸 유람선을 때렸다. 선수에선 시커먼 연기마저 피어올랐고 차디찬 바닷물이 들어왔다.

승객 110명이 탄 바캉스호는 아수라장이 됐지만 선원들은 곧바로 승객들을 안심시켰다. “구명조끼를 입으세요. 구명조끼를 입어주세요. 침착하면 모두 살 수 있어요.” 승무원들의 외침이 배 안에 울렸다. 승객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구명조끼를 하나씩 건넰받았다.

사고 당시 2층 선실에 있던 김모(여·65·부산시 영도구)씨는 “선반에 있던 구명조끼를 빼내려고 했지만 쉽게 빠지지 않았다”면서 “키가 작은 탓에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남자 승객이 다가와 구명조끼를 꺼내 줬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5분 뒤인 이날 오전 9시20분, 인근을 항해하던 유람선과 어선들이 바캉스호로 바짝 다가왔다. 어민 3~4명도 재빨리 바캉스호로 건너와 승객들을 대피시켰다. 승객 110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2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유람선 선원들은 승객이 구조될 때까지 사고 선박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

김모(52·순천시)씨는 “파도 때문에 구조를 나온 여객선으로 옮겨타는 것 자체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탑승객들이 선원의 지시에 차분하게 따라줘서 비교적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경 뭘했나? =해경의 미숙한 초기 대처는 세월호 침몰 때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경이 사고 이후 대규모 해양 사고에 대비, 해상 인명구조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해양 사고 대응 태세를 높여줬다고 해지만 미흡하기만 했다.

홍도 해역에 좌초된 유람선 홍도바캉스호 승객들을 구조한 해경이 아닌 홍도 어민들이었다.

목포해경 흑산파출소 홍도출장소 직원은 순찰정도 없이 부랴부랴 주민 배를 얻어타고 나가 발만 동동 굴렀다. 순찰정이 없어 번번한 구조 장비조차 챙기지 못했다. 홍도에서 20km 떨어진 흑산도에 머무르던 순찰정은 상황이 대부분 종료된 30분 뒤에야 도착했다. 주민들의 적극적 도움 없었더라면, 해경만 믿었다면 ‘큰일 날 뻔’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가 내놓은 섬지역 주요 항로별 여객·차량 수송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홍도를 드나든 국민은 496만5311명으로, 한 해 평균 70만 9330명에 이른다. 주민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관광객이 찾는 섬이지만 해경의 해상 안전 대책은 무관심에 허술하기까지 하다. 경비정조차 배치하지 않고 2명이 하루씩 번갈아 근무를 하는 게 전부다. 관광객 안전 등을 감안, 수차례 요청해도 묵살당한 것으로 어민들은 전했다.

홍도 해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흑산파출소 순찰정 1대가 오는 데 최소 30분 이상 걸리는 실정이다. 7척의 유람선이 배마다 수백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거친 바다를 돌며 사고가 나더라도 해경은 30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일각에선 암초지대가 많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홍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해경의 부실한 관리가 제2의 세월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도 어민 김모(53)씨는 “홍도에 경비정이 없다. 20km 떨어진 흑산도에서 신고 받고 출동해도 최소한 30분 이상 걸린다”면서 “사고 나면 꼼짝없이 큰일 난다. 어민 또는 항해 중인 유람선에게 구조를 맡겨야 하느냐. 오죽했으면 파출소장도 선외기를 타고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굴렀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이날 해당 선박 선장 문모(56)씨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를 확인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목포=김준석·김병관기자



지난 30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동쪽 1.8km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혀 일부 침수된 유람선 '홍도 바캉스호'(171t)에서 무사히 구조된 승객들이 목포 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해 119 구조대와 경찰의 안내를 받고 있다.

/목포=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바캉스호 제원과 사고 일지



목포항에 예인된 바캉스호

- 선형 : 27년 (세월호보다 7년 많음)
- 무게 : 171톤
- 길이 : 37.44m
- 폭 : 7.6m
- 높이 : 3.2m
- 정원 : 355명

▲사고 일지

- 오전 7시20분 출항
- 오전 9시 10분께 홍도 슬픈여 방향으로 이동
- 오전 9시14분 신안군 흑산면 홍도 동쪽 110m 해상 암초에 좌초
- 9시 15~17분 사이 뒤따라가던 설피라워호 원복 점안 80여명 구조
- 9시 20~23분께 어선 도착 15척 중 5척 구조활동
- 9시 42분 전원구조

▲주민들 선박 도입 당시 목포해경에 탄원서 제출

- 탄원서 제출 이유
- 홍도 유람선 회사는 지역 주민이 운영해 왔다.
- 오래된 배가 운행될 경우 관광지인 홍도에 손님이 끊길까 염려된다.

▲홍도 운항 중인 유람선 7척 선형 11~15년

- 88길용호, 아이슬랜드호, 레드아이랜드호, 설피라워1호(10년)
- 제1파라다이스호, 제2설피라워호(10년), 산마리노호
- 홍도크루즈협업 6~7명 1척 27년 (바캉스호)

광주 아파트서 일가족 3명 피살

면식범 소행 가능성 수사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피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0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D아파트에서 권모(여·42)씨와 딸(13), 권씨의 친정 어머니(68)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권씨와 딸은 목 졸린 흔적이 있었으며 권씨 어머니는 머리에 둔기를 맞은 상처가 있었다. 시신은 안방과 거실에

서 각각 발견됐다.

경찰은 최근 실종 신고된 권씨 딸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 둔기자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원한관계에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등산복 매장 털고 승용차까지 훔쳐 타고 달아난 '간 큰 10대'



상나팔

간 큰 10대가 경찰서행, ○...지난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17)군 등 5명은 지난 24일 새벽 1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A등산복 매장 유리창문을 도구로 깨고 들어가 등산복

100벌(1500원 상당)을 훔친 뒤 같은 날 새벽 5시께 북구 두암동 한 골목길에 주차된 이모(34)씨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

○...이들은 훔친 등산복을 옮기기 위해 이씨의 승용차를 몰래 타고 도망갔는데, 경찰에서 “친구들에게 등산복을 나눠줬다. 사이즈가 맞지 않은 옷은 내다버렸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건물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00만 주안직접 운영시 1,800만 수익발생
매가 13억 (보2억 용5억)

②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2층 상가건물 영신중고교, 대덕 APT앞
건물 135평 1.2층 80평(2간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보증금3천 월 200만원 용1억) 매가 2억8천

③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용1억8천)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됨
매가 3억1

④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 건 500평 월수익 900만
매가 10억

⑤ 북구 옹동동 8층 건물 1층 상가 58개 삼성전자 앞 (보증금 2억, 용15억)
오피스텔 (월세 3000만 수익) 매가 35억

(주)대신 010-6670-98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컨설팅분야 : 신축 · 설계 · 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헤드레플리너.

근/리/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북구 양산동 (토지774㎡, 건1031㎡) 감평가 16억1천 / 최자가 11억3천 (신건1회)투자적합 ·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780.2㎡, 건1992.57㎡) 감평가 24억7 / 최자가 13억8천 (유할1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오치동 (토지378.9㎡, 건659.25㎡) 감평가 5억/ 최자가 3억5천 (유할3회)투자적합 · 광주 서구 화평동 (토지1094㎡, 건4489.1㎡) 감평가 41억 / 최자가 18억 (유할7회)투자적합
근/리/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서구 금호동 (토지197㎡, 건362㎡) 감평가 3억8천 / 최자가 3억8천 (유할1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임동 (토지126㎡, 건178.61㎡) 감평가 1억6천 / 최자가 9천2백 (유할1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유동 (토지229.7㎡, 건606.69㎡) 감평가13억8천 / 최자가 2억1천 (유할2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유암동 (토지89㎡, 건172.74㎡) 감평가 7천2백 / 최자가 4천 (유할3회)투자적합
숙/박/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서구 광현동 (토지235㎡, 건980.38㎡) 감평가 7억9천 / 최자가 4억3천 (유할1회)투자적합 · 광주 서구 양동 (토지176.9㎡, 건481.16㎡) 감평가 2억7천 / 최자가 1억5천 (유할1회)투자적합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1182.4㎡, 건2289.6㎡) 감평가 32억 / 최자가 18억 (유할2회)투자적합 · 여수시 돌산읍 (토지67.3㎡, 건985㎡) 감평가 7천2백 / 최자가 4천 (유할3회)투자적합
오/피/시/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6.6㎡, 건24㎡) 감평가 2천4백 / 최자가 2천4백 (유할1회)투자적합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42.826㎡, 건190.68㎡) 감평가 3억5천 / 최자가 1억 (유할5회)투자적합
공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광산구 하남동 (토지1734㎡, 건2635㎡) 감평가 14억 / 최자가 8억(유할1회)투자적합
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3974㎡) 감평가 44억 / 최자가 44억 투자적합 · 광주 북구 용봉동 (토지797㎡) 감평가 1억3천 / 최자가 7천3백 (유할1회)투자적합

경매 직원구함, 공동 사무실 쓰실분
경매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영, 설계, 부동산관련 전체를 취급합니다)

부동산 직원구함 남 · 녀 실장(여성 자격증 소지자 급여제 가능), 경리구함

(주)대신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후분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① 전대상대 교통공단 5분 룸14개(주인세1개)
매가 6억4천

② 전대 상대 1분 룸12개
매가 6억 (호반APT앞)

③ 전대 정문 1분 룸18개 (상가1층 2칸 만실) 월수익 700
매가 8억

④ 전대정문 1분 룸19개 4층 주택 1개 엘리베이터 앞 완비 월수익 800
매가 12억

062)527-7600

상가 임대

① 2층 상가임대 25평 전대정문 2분 모아APT앞, 사차선 대로변 내부시설 완비 즉시 입주, 관리비 없음 (보300, 월38만) 시설약간있음

② 커피숍 중심사 1층임대 80평 개국적합, 중심사등산길 가는길 (시설약간있음) (보3천, 월300만)

③ 노래방 임대 상무지구 지하 80평 룸7개 (시설3천만) (보5천, 월150만)

④ 중화요리 임대 상무지구 1층 80평 월수익 2천만 거래처 인계함 (보5천, 월200만)

⑤ 상가임대 물건다량있음

010-6832-9700

오피스텔 매매(수익상가)

① 동구 수기동(제일오피스텔)6층(48평) 친변쪽 방향 전망좋은 내부시설 올리모델링완비 즉시입주(임대가능, 보 1천 월70만, 용5천) 48평 매가 1억3천 **▶ 1억1천만**

② 서구 상무지구(수림오피스텔)6층(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완료 (보 300만, 월33만, 용1천3백만) 매가 5천만

③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19평 내부시설 완비, 즉시입주가능 (보 500만, 월45만, 용2천2백만) 매가 8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2층(11평) 원룸형 온천역 2분 내부시설완비, 즉시입주가능 전세가격으로 원룸을 매입 월세로 노후 보장가능 (보 200만, 월27만, 용1천만) 매가 3천5백만

⑤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정연오피스텔)3층(30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완료, 한국은행 앞 현대 APT맞은편 (보 1천만, 월70만, 용8천만) 매가 1억1천만

⑥ 수완지구 1층(19평) 대방 5차 APT 후분 (보 3천만, 월130만, 용2억5천만) 매가 3억5천만

⑦ 수완지구 3층(85평) 한솔빌딩 신원은행 뒷 모이엘가 A37앞 (보 3천만, 월200만, 용2억5천만) 매가 3억5천만

⑧ 수완지구 3층(62평) 엠스타 롯데대 옆 (보 2천만, 월150만, 용9천만) 매가 2억5천만

⑨ 수완지구 2층(62평)대상오션스파 부영 APT 앞 (보 1천만, 월70만, 용9천만) 매가 1억7천만

신한 010-6832-9700